

이덕일의 '역사의 창'



'비호감 대선'의 뿌리는?

해방 후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은 현재까지 우리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적 문제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는 1948년 반민특위의 좌절을 그 이유로 든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을 통과시키고 10월 22일 반민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 출범 당시 이미 이 특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군정 3년을 거치면서 나라 권력의 대부분이 친일파들의 손아귀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는 어떻게 보면 미군정 3년 동안 좌절을 겪고 탄압받았던 민족세력이 친일파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직후의 정치 지형은 대일 항전에 투신했던 좌우파 정치 세력과 친일 반민족 집단의 돌로 나눌 수 있다. 대일 항전에 나섰던 정치 세력은 민족주의 정치 세력과 사회주의 정치 세력이다. 민족주의 정치 세력의 본류는 백범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 좌파 정당인 조선인민당이 있었다.

다른 한 세력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부여했던 친일

집단들이었다. 우남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촉성중앙회와 인촌 김성수가 이끄는 한국민주당(한민당)이 그들이었다. 이 두 세력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대체적인 성격은 친일 지주 정치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방된 조국의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 수 없으니 처음에는 임시정부를 추대하겠다는 '임정봉대론'을 들고 나왔다.

미군정 3년 동안 실정의 연속이었던 것은 이들 반민족 친일 세력들이 미 군정권의 여당으로서 행정부는 물론 검찰·경찰 등의 사법기관들도 장악하고 일제 때처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런 왜곡된 정치 구조에 대한 심판이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였다. 백범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 결과는 이변이었다.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235명이 입후보했는데, 24%의 득표율로 55석을 얻는 데 그쳤다. 91명이 입후보한 한민당은 17%의 득표율로 29석 확보에 그쳤다.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것은 42%의 득표율로 85명이 당선된 무소속이었다. 무소속에는 한독당 탈당파와 독립운동 세력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독당이 제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면 아무리 친일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치열했어도 제1당이 되었을 것이

다. 그래서 한독당 선거 불참에 대해 김구 주석의 실책론이 지금껏 대두되지만 백범은 자신의 말처럼 통일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내놓은 것이었다.

둘이 합쳐 41%밖에 얻지 못한 독립촉성국민회와 한민당이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독차지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왜곡된 정치 구조의 뿌리다. 그간 군부 세력들의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민주대반민주 구도가 형성되었고, 그 극복 과정에서 김영삼·김대중이라는 걸출한 민주화 지도자가 나타나 1987년의 헌법 개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치 문제에 관한 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의 뿌리는 바로 두 친일 세력이 야와 야를 독점한 1948년 체제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동안 몇 번 강조했지만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이른바 '춧발 정권'에서 더욱 승승장구하는 이 광란의 뿌리도 바로 이 1948년 체제가 약간의 화장만 바꾼 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다. 급기야 어느 정당의 정강 정책이 아니라 상대 후보와 가족에 대한 호불호로 대통령이 결정될 지경까지 이른 것 역시 현재의 여야 모두 1948년 체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타파하고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는 길은 35년 세월을 풍찬노숙하던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겨울이 괴로운 비염 환자



신동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있다. 겨울이 이맘때 나타나는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증상은 대부분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코감기로 알려진 급성 비염이 대부분이다. 알레르겐(알레르기의 원인 이 되는 항원) 또는 바이러스가 코점막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면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계절마다 찾아오는 일시적 증상이나 일반적인 비염으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치료도 까다롭다.

비염이 오래되면 부비강(코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은 바이러스나 세균 증식이 쉬운 환경이 되면서 부비강염(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진행된다. 만성화되면 호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학업 및 업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심하면 후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급성 비염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필요하면 혈관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겐이 파악된 경우라면 소량의 알레르겐을 투여하고 차츰 농도를 높여가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 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강(코속)의 구조적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은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 비강 내 특정 부위가 좁아지거나 연결이 휘면서 생기는 '비중격 만곡증' 또는

'비밸브 협착'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약물은 증상 완화 효과는 있으나 일시적이다. 구조적 변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질환이 없어도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코가 막히고, 콧물과 목에 가래가 생겨 불편함을 느낀다면 비중격 만곡증이나 비밸브 협착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생소하지만, 유병률은 약 60~70%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비중격은 코 중앙에서 좌우를 나누는 벽 역할을 하는데,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어질 수 있다. 비밸브는 비강 위쪽 공간에 내비밸브와 외비밸브 사이에 있는 좁은 길로 호흡 조절 역할을 한다. 이 길이가 좁아지는 것을 비밸브 협착이라 한다.

이 두 질환은 기능적 문제뿐 아니라 코가 휘거나 좁아진 공간 탓에 콧대가 낮아질 수 있어 치료를 통해 미용상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수술 방법은 초음파·고주파·레이저·미세 절삭 등 다양한데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한 후 수술 가능 여부와 방법을 선택한다.

비염은 '수술로 완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질환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로 눈에 띄는 증상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발해도 대부분 경증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 등 코에 자극적 요인은 최대한 차단해야 하며, 겨울철 과도한 난방을 피하고 적정 실내 온도(20~24도)와 습도(50~6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방 안의 코끼리' 교육



김광호 여수 여양중 교사

전 세계 곳곳의 관광지, 박물관, 공원, 공연장을 다녀온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혼란스러울 만큼 흐릿해진다."

이것은 가상 소설의 내용이 아니다. 머지않아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21세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적응하려면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획일화된 우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 제도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 주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금도 대학과 점수 타령만 하고 있을 뿐이다.

수능시험 언어 영역 문제를 잠시 옆보자. "복합 지문 - 꿈을 주제로 다룬 시와 혁명을 꿈꾸는 허균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한다." 당연히 아이들의 머리를 따분하게 하는 그런 유의 문제이다. 질문은 이렇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화자의 가치관과 유사한 보기를 찾아보자. 다음 중 외재적 감상방법이 아닌 것은?" 등등 몇 가지 정형화된 질문을 던진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저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또 푸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 없이도 바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창의적인 사고는 질문자의 의도를 놓칠 수 있기에 금

물이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의 플래카드에 이름까지 새겨 주곤 한다.

아직까지도 중등학교에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지력,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무비판적으로 그 척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명문대에 진학하는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다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도 혁명이 필요하다.

정의, 공식, 수준 낮은 문제 처리법을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게 하는 교육 방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직무 능력을 키우는 가르침은 산업사회의 유훈로 남겨 두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통해 빛 좋은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산할 수 있다고 모두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가.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방 안의 코끼리' (모두가 알지만 감추고 싶어 하는 불변한 문제) 교육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社說

여야 설 민심 정확히 파악 '정책 경쟁' 나서야

명절 민심은 역대 대선에서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민족대이동으로 전국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밥상머리에서 만나면서 세대·지역·이념을 초월해 여론이 뒤섞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줄긴 했지만, 올해 설날 연휴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새나 이어져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박빙의 혼전 양상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보와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총출동해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결집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 아래 텃밭 표심 다지기 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날 27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말바우시장, 충장로를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

다.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손 글씨로 작성한 손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연휴 기간 전국의 지역구에서 민심을 살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화두였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해석은 아전인수 격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민주당은 그 때문에 능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아운 두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이 끝내 무산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시선은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첫 4차 TV토론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 토론에서 설 민심을 반영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자랑스럽다

한국 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설 연휴를 맞은 국민들을 기쁘게 한 낭보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그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에서 시리아를 2대 0으로 이겼다. 후반 8분 김진수(전북)가 김태환의 크로스를 헤딩 골로 연결시키더니, 후반 26분 권창훈(김천)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중거리 슈트로 시리아 골문에 골을 꽂아 넣었다. 적시에 선수를 교체한 벤투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한 판이었다.

한국 축구는 지금까지 8개인을 치른 최종예선에서 6승 2무(승점 20) 무패 행진을 이어 가며 최소 A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시리아전 승리로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

까지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올해도 22회를 맞는 월드컵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뿐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나라가 됐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앞으로 다음 달 24일 이란과 29일 아랍에미리트와 남은 예선 두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치러지는 월드컵 본선에서 축구 강국들과 치열한 승부에 들어간다.

요즘 국민은 대선 주자들의 막말과 견잡을 수 없는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팀의 패거리는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는 청량제가 되었다. 본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無等鼓

임기 말 청와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것 같다. 차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40% 내외의 지지율에 고무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여전히 강력히 전달되고, 레임덕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론은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에 더 쏠려 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도 복잡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기가 끝나 가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그보

다는 어려운 것 같다.

그 원인은 결국 사람이었다.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정치인 장관을 선호했다. 토포악발(吐哺虵髮)이나 임인유현(任人唯賢)의 자세로 인재를 구하기보다 한정된 집단 내에서 갑작 발탁했다. 특정 인사를 고집해서 자리에 앉히는 무리수도 남발했다. 장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마다 '자기 사람 심기' 논란을 자초했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출마 대가

사라진 미션

다 더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일 수밖에 없다. 진보와 보수보다 이념적인 이념적인 약한 중도 세력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

사실 '춧발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는 몇 가지 미션이 주어졌다. 부동산 개혁, 교육 개혁, 검찰 개혁, 조세 개혁, 재벌 개혁, 지방분권 등이 그것이다.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들 미션은 얼마나 실행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을까.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후한 점수를 주

자들의 이름값만 올려 주는 곳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들이 지역과 소통하며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줄을 서고 청와대 또는 권력기관에 갔다 오는 데 더 치중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는 출범 당시의 미션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훌륭히 처리했다더라도 주어졌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차질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루지 못한 미션이 차기 정부에서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